

계승의 한해, 승리의 2012년

2012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이해의 마지막 12월에 들어서며 우리 겨레는 홀려온 한해의 날과 달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고 있다.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뜻박에도 잃고 가슴저는 상실의 아픔속에 밝아온 2012년의 첫 아침이었다. 그날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한해가 흘렀다.

세계가 지켜본 이 2012년에 조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는 선군조선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돌고 기대했던 《변화》나 《붕괴》는 자그마한 싹도 볼수 없었다.

비예의 12월은 역시도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력사를 즐기게 계승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 공화국이다.

누가 이 땅, 이 행성에 드리웠던 캄캄한 먹구름을 걷어내고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을 다시 뿌려주었던가. 누가 피눈물의 바다에서 쓰러지고 영영 일어서지 못할것 같은 군대와 인민을 다시 일으켜세워 강성변영의 미래에로 힘차게 내달려 하였던가. 그는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번의 위인이신 김정은원수님이시었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헌신의 한평생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뜻을 드림없이 이어갈 사명감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격동적이며 이 나라의 2012년은 격동적인 한해로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올해공동사설의 격동된 호소로 인민의 가슴에 신념과 용기의 불을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른 아침 눈눈길을 헤치고 찾아가신 곳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

경수제105명크 사단이었다.

105명크 사단은 명칭만 불러 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하시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첫 자욱을 근위부대에 새기신 원수님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선군으로 자랑될 처운 자욱과 존엄의 자랑찬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될것임을 굳게 확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에 뿌려진 강성국가 건설의 씨앗은 탁월한 계승자에 의해 바야흐로 꽃피게 될것이라

는 의지와 결심이 피력된 첫 현지시찰소식은 반평화, 반통일세력의 《북붕괴설》은 망설이며 망상이라는것을 내외에 똑똑히 선언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에게 달려있다. 조국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판문점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101(2012)년 3월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생기게 된다.》

김정일

인민행렬차는 오늘도 달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경모의 정으로 사람들의 가슴 뜨겁게 젖어드는 12월이다.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날과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애국위업실현의 전기간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행렬차를 타고 쉬임없이 달리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그의 력사적사명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북부였고 그의 최대의 기쁨은 조국의 변영과 인민의 행복이었다.

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늘 외우시던 웅심깊은 말씀에도 어려웠다.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전기간에 찾고찾으신 단위는 연 1만 2 790여개를 헤아리며 로정거리는 157만 4 980여리에 달한다.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전

에는 강행군을 순간도 늦출수 없다는 의지를 가다듬고 시고 대고조선군길의 앞장에서 달리신 장군님, 멀고 험한 건설장들로 남면저 가는 것이 습관으로 되었다고 하시며 등에서 서에도, 서에서 북으로 인민행렬차를 달리신 장군님이다. 그의 헌신의 로고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경공업기지를, 파수농장들이 일떠섰을뿐 아니라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인민봉사기지가 훌륭히 꾸려지고 창전거리의 살림집과 같은 현대적인 주택지들이 준비하게 일떠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지난해 12월 보름동안에만도 불철주야, 불면불휴의 강행군현지지도로 개선청년공인회합장, 하나남악정보센터,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비롯한 1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었다.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한생을 쥐어

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남는것이 없다고 하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야전생활과 초강도강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어오신 장군님은 령도자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었다.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아버지 장군님의 높은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상에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민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머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할것을 결심한 안으시고 올해정초가 일일이 물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원아들의 노래도 들려주시며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 해주시었다.

장군님께서 한생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뿌려놓으신 귀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의 아침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 민족의 만년미래가 놓여있다는 진리를 새기시며 다박출조소를 찾으시었다.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

신 선군의 보검이 있었기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맥을 추지 못했고 이 땅에 무릉도원의 봄꽃들은 움터나기 시작했다. 생사기묘에 놓였던 조국의 운

명을 구원해주시고 선군으로 자라날터는 존엄높은 민족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의 2012년을 력사에 글문자로 새기시었다.

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원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에 도전하는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수호의 준엄한 길을

반공기의 죽

잇을수 없는 강행군의 나날의

어느해 6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었을 때의 일이다. 장군님께서 군부대시찰을 끝내셨을 때는 저녁녘이었다. 그이께서는 부대일꾼들에게 저녁식사나 한끼 하자고 하시며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셨다. 식탁우에는 한공기의 죽과 양념간장 한종지가 놓여있었다. 장군님께서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생각각아서는 동무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싶지만 나라의 사정이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셨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전후 어려운 시기에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드신데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인민들이 죽을 먹

을 때는 우리도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나는 죽 반공기면 충분하다고, 어서 많이 들라고 그들에게 권하셨다. 반공기의 죽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는 그대로 한편의 노래가 됐다. ... 조국의 운명 지키려 철혈을 넘어 몇 천리 락원의 길을 여시려 강계를 찾아 몇 천리 한공기 죽도 나누며 장군님 헤쳐 가신 시련의 그 자욱을 우리는 잊지 않으리 ...

1998년 12월 초 어느날이었다. 그날 장군님께서 이른아침부터 분과 초를 쪼개가시며 긴장하게 시간을 보내셨다. 여러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로 매식도 견드신채 한것을 사업하신 그이께 일꾼들은 다문 얼마만이라도 점심을 드시고 떠나셨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쳤다. 이때 장군님께서 문득 자신께서 뭘 좀 견사한것이 있다고 하시고는 승

용차로 걸음을 옮기셨다. 혹시 간식이라도 있겠는가 하는것이 일꾼들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이의 수중에 있는것은 얼마 안되는 삶은밥이었다. 일꾼들을 일별하시던 장군님께서 밤 다섯알씩 나누어주시며 어서 들라고 하셨다. 밤 다섯알이 그날 장군님께서 드신 점심식사였다. 본사기자 리경월

밤 다섯 알

다른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기업차로 조국을 왕래하는 때가 잦다. 몇달전에도 조국을 다녀왔다. 경제거래로 해서 수차례 걸쳐 조국을 드나들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있는 조국의 특유한 정치기상이다. 이를테면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하나고 걸음도 같고 정도 똑같을 때를 나는 빛발치는 시대정신에 나는 동감하게 됐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말을

고 애를 걸고 일어나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셨다고 한다. 정초에 한 땅크부대를 시찰하신 그분께서 병사들과 팔과 팔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는 광경을 TV화면을 통해 보게 된 나는 큰 감동받았다. 조국제휴의 나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다같이 전우들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전우부자라고 할수 있다고, 전우부자인 우리는 부러울것이 없으며 언제나 이길것이라고 하셨다는것을 듣고

는 조국에서 통용되는 팔을 끼고 애를 걸고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되새겨보게 됐다. 북에서 말하는 동무와 동지라는 말에서 나라의 최고지도자와 당과 정부, 국가의 일꾼들과 대중이 모두 다 혼연일체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느낄수 있었다고 한 유령연제미동포의 방북소견에 나는 동감하게 됐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

다. 회친발전소, 평양민속공원, 장전거리, 룡라산원유진, 인민군구장, 평양산원유선중양연구소, 통일거리운동센터,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하여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현대적건축물들과 문화적재부들은 령도자는 인민을 끝없이 믿고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애국충정을 다하는 혼연일체의 힘이 낳은 결실이라고 본다. ... 통일 의 앞길을 가로막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통일의지와 락관에 고무되어 조국인민들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었다. 애국위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모습에서 나는 조국의 밝은 미래와 민족의 강성변영을 재삼 확신하게 되었다. 김준호(재중동포)



평양시내 여러곳에 꾸려진 체육유희시설들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

령도자와 인민의 모습에서

두사람이나 몇몇 일꾼들이 아닌 전체 인민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 병사들모두를 자신의 전우로, 동지로 여기시는것이다. 조국에서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라는것은 하루아침이나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것을 나는 이미 알고있다. 재중동포기업인으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일 때부터 라선에서 자리를 잡은 랑동포가 당시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남들이 좌왕우왕하고있을 때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기업을 활성화

다. 언제인가 대국상의 비분을 가지고 일떠선 인민들에게 생능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자욱자욱 생능길을 헤치는 정신으로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에 대한 현지시찰, 공장들과 건설장들에 대한 현지지도로 조국수호,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셨다. 그분의 발걸음 따라 전민이 보폭을 함께 하며 조국을 지키고 강성국가건설도 힘차게 다그쳤

다. 언제인가 대국상의 비분을 가지고 일떠선 인민들에게 생능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자욱자욱 생능길을 헤치는 정신으로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에 대한 현지시찰, 공장들과 건설장들에 대한 현지지도로 조국수호,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셨다. 그분의 발걸음 따라 전민이 보폭을 함께 하며 조국을 지키고 강성국가건설도 힘차게 다그쳤

다. 회친발전소, 평양민속공원, 장전거리, 룡라산원유진, 인민군구장, 평양산원유선중양연구소, 통일거리운동센터,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하여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현대적건축물들과 문화적재부들은 령도자는 인민을 끝없이 믿고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애국충정을 다하는 혼연일체의 힘이 낳은 결실이라고 본다. ... 통일 의 앞길을 가로막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통일의지와 락관에 고무되어 조국인민들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었다. 애국위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모습에서 나는 조국의 밝은 미래와 민족의 강성변영을 재삼 확신하게 되었다. 김준호(재중동포)

다. 회친발전소, 평양민속공원, 장전거리, 룡라산원유진, 인민군구장, 평양산원유선중양연구소, 통일거리운동센터,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하여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현대적건축물들과 문화적재부들은 령도자는 인민을 끝없이 믿고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애국충정을 다하는 혼연일체의 힘이 낳은 결실이라고 본다. ... 통일 의 앞길을 가로막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통일의지와 락관에 고무되어 조국인민들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었다. 애국위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모습에서 나는 조국의 밝은 미래와 민족의 강성변영을 재삼 확신하게 되었다. 김준호(재중동포)

대결과 충돌을 종식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미래에로

환희의 6.15를 되찾아야

남조선에서 있게 될 《대선》이 이제 10여일을 앞에 두고있다. 우리 겨레는 남조선에서의 이번 《대선》을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잃어버린 5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한것은 현 리명박보수 《정권》이 집권 5년간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뜨리고 대결과 북침전쟁소동의 칼바람만을 몰아왔으며 그로 하여 이 땅에는 항시적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어있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의 집권 5년은 남조선인민들뿐아니라 6.15의 환희로 전진하던 북남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큰 피해를 들뜨였다.

남조선의 인터넷매체인 《뉴스시스》는 이렇게 전하였다.

《〈정권〉 교체만이 1%만 잘사는 (대한민국) 을 끝내고 99%가 함께 잘살수 있다.》

《리명박 《정권》 5년동안 국민은 정말 힘들었다.》

《또다시 과거로 회귀해선 그 고통을 끝낼수 없다.》

《보수연장으로 《한》 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잘못된 선택으로 악몽의 5년을 자초한 사람들이 지난날을 후회하며 다가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 취하게 될 립장이 반영된 말이라 하겠다.

돌이켜보건대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얼마나 거대한 경이

적인 전변을 가져왔던가. 통일환호성이 온 강산에 넘치는 속에서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던 혈맥과 지맥이 이어지고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민족의 대화합잔치가

성대히 치러졌다. 6.15의 열풍속에서 금강산관광길이 더욱 활짝 열리고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어 민족번영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었다. 바로 5년전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며 평화번영의 설계도인 력사적인 10.4선언

이 발표되어 온 민족을 다시 한번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그날의 환희, 격동적인 화폭들을 잊을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 나날 분렬의 쓰라린 한과 아픔을 털어내며 6.15의 맛,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맛이 어땠던가를 진하게 느꼈다. 그때 우리 북과 남인민들은 머지않아 이룩될 통일만 생각하였지 오늘과 같은 비극적 사태는 상상도 못하였다.

이 모든 기쁨과 환희를 우리 민족에게서 앗아간 극악한 반동

일대결 《정권》은 리명박보수 《정권》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정권》문제를 갈아대자마자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짓밟고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오늘의 처참한 지경에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파국의 5년을 몰아온 현 《정권》과 한배속인 《새누리당》 후보가 그 무슨 《남북관계개선》과 《신뢰》구축에 대해 운운하고있으니 낮간지러운 처사가 아닐수 없다.

민심기만을 식은죽 먹듯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인민들이 녹아나고 북남관계에서 《잃어버린 5년》이 되풀이될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민방에 빛내려는 높은 각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힘을 합치면 능히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를 실현할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며 만만한 의지가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환희의 6.15를 되찾아야 한다.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일심장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화불로 떠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되찾아야 한다.

온 겨레가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6.15의 기치밑에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이제 남조선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수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과 남은 수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여 온 겨레를 통일열망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10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해외본부는 북측본부와 함께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자》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방도들

북남공동선언을 끝까지 리행할 겨레의 의지

을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라고 지적하였다.

10.4선언의 채택은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6.15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해온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일대 민족사적사변이었다고 성명을 밝혔다.

성명은 10.4선언이 순조롭게 리행되었더라면 이 땅에 6.15시대의 경이적인 사변들이 이어져 평화롭고 부강번

영하는 통일조국의 새로운 현실들이 펼쳐지게 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총위원회도 북측위원회와 공동으로 해내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단합된 힘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10.4선언발표 5돐기념 해외동포통일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로씨야와 중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가자호스판, 미국, 도이칠란드,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동포조직대표들과 재로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싸쨌 우랄라트바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위원장을 비롯한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 전쟁로병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민족이 높이 받들어모신 또 한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또한 호소문이 발표되고 사진 및 도서전시회, 공연이 있었다.

제일동포들은 10.4선언발표 5돐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일본의 이푸노구민센터에서 진행된 오사카동포들의 기념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6.15공동선언

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고 새겨안게 된다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이 낭독되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10.4선언발표 5돐을 기념하였다.

서울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진행한 기념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의 집권으로 지난 5년간 북남관계가 최대로 악화되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각계층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지향한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기에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또한 로부현재단의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다.

야당들도 10.4선언의 의의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 철저한 리행을 주장하였다.

새 진보당당추진회의 대변인은 룬명에서 당국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이으려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서울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6.15. 10.4국민연대, 민주진생평화통일추진연대가 가진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실현하는것은 민족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주최로 한양대학교에서 청년학생통일통구대회가 진행되었다.

재중동포들이 10.4선언발표 5돐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연설한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은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10.4선언이 채택된지 5년이 된 오늘까지도 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다음야당인 리명박 《정부》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태때문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재미동포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끝까지 실천하려는 해외동포들과 단합하여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간이 할 일도 있기때문에

낮간 지러운 말 《약속》, 《신뢰》

《약속》, 《상호존중》과 《신뢰》.

최근 《새누리당》후보가 북남관계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주 한 말이다.

듣기에는 그럴듯 하나 문제는 말이 아니라 그가 과연 북남사이에서 지난 기간 이룩된 모든 합의들과 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하는 그의 태도만 보아도 의심이 앞서지 않을수 없다.

그는 지난 8월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에서 《북의 (천안) 함북침》이니 《연평도포격》이니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에 대해서는 일언의 구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후보수락연설》에서 《6.15.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한 야당의 《대통령》후보와 대비해볼 때 북남관계문제에 관한 그의 사고가 기초부터 삐뚤어져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4선언에 대해 《리행에 있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외워 왔다.

이것은 남조선 현 보수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것으로서 결국 10.4선언을 리행하지 않겠다는것이냐 다름없다.

최근 《새누리당》이 이른바 《NLL문제》라는것을 들고나와 분주량을 피우고있는 본심도 다름아닌 10.4선언을 부정, 말살하려는데 있으며 이 소동의 배후에 《새누리당》후보가 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이 시각도 그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페거리들은 《보복》이니, 《용징》이니 하며 북남관계를 충돌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후보는 《북의 지도자와도 만날것》이라고는 낮간지러운 소리로 자기의 인기를 올려보려고 무진애를 쓰고있다.

도대체 북남수뇌분들이 확약한 공동선언들을 외면하면서 무슨 《약속》을 지키다 는것이며 《정상회담》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리명박 《정권》은 지난 5년간 북남관계에서 그 무슨 《원칙고수》에 대해 수없이 떠들어왔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북과 남사이의 어떠한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명박이 직접 여러 기회들에 《임기중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것》, 《남북문제는 근본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는것이 대전제》, 《핵포기없이 어떠한것도 불가능하다는것이 (정부)의 립장》이라고 하면서 《원칙고수》를 띠어 결코 북남

공 지 박 산 난 북 남 관 계

리명박은 집권 첫째인 2008년 3월에 벌써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내놓고 공언하였다. 그리고는 6.15공동선언, 10.4선언리행과 관련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전면중단시켰다.

리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떠들어온 북남관계에서의 《원칙고수》란 본질에 있어서 그 누구의 《핵포기》너울을 쓴 《반북대결고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북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북남관계에서의 《강경고수》였다.

실지에 있어서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에 그 무슨 《길들이기》니, 《기싸움》이니 하면서 북을 저들의 새 《정권》에

《원칙고수》가 맞을 내린 곳은 어디인가

대화전면거부를 공식 선언하였었다. 집권자의 말을 되받아 통일부도 《(비핵, 개방, 3 000)에 립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늘 외워왔다.

한마디로 리명박의 집권 5년은 《원칙고수》의 미명하에 반북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 놓고 북남관계를 사상 류례없는 파국에 몰아넣은 최악의 5년이다.

《순용》하게 하려면 《남북관계조정기》,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고 력설하면서 《원칙고수》의 《명분》을 세웠다.

사실 조선반도핵문제는 북남사이에서 논의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산물로서 조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핵전쟁머슴군인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자기의 최고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억제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것이다.

그 누구에 대한 《개방》요구 역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

한 용납 못할 도발이고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문을 닫아맨적이 없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6.15이후 북남사이에는 대화와 접촉, 협력과 배왕이 활성화되었다. 오히려 공화국에 대한 봉쇄와 고립책동에 대타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대왕의 문을 전면 닫아맨 것이 다름아닌 미국이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다.

리명박은 대결적인 《원칙고수》의 미명하에 북남관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해왔다. 《원칙고수》란 말이 《고수》이지 그야말로 반공화국대결광란이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원칙고수》론으로 인해 6.15공동선언발효후 7년간이나 꾸준히 진행되어온 북남상호회담은 언제 폐쇄되고 10.4선언이후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발전한 북남대화도 하늘로 날아갔다. 것처럼 활발히 진행되던 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대화도 전면중단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북과 남을 오가며 수시로 만나고 대화를 하였지만 지금은 대 땅에

서는 물론이고 3국에 나가서도

만날수 없는 비극이 펼쳐졌다.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던 북과 남사이의 철도와 도로도 다시 막히고 하늘길, 배길도 끊어졌으며 겨례의 통일열기를 북강산관망도 중단되었다.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사회문화협력, 인도주의협력에도 빗장이 걸렸다.

북남관계는 6.15이전의 침에 한 절대관계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이르러 대결과 전쟁의 팽기만이 조선반도를 휩쓸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통일에국

파 멸 의 구 령 령 이

한가지가 백가지라고 했다.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고 동족대결과 사대매수, 반인민적약정과 특대형부정부패만을 일삼아온 리명박 《정권》에 력사와 민족은 이미 사형선고를 내리었다.

이제 남조선에서 어느 누구도 리명박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북남관계, 정치, 경제, 민생과 탄 등 저지른것은 온통 악행뿐이니 내외여론의 규탄배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리명박을 보좌한다는 《청와대》 직원들마저도 현 집권자에게 등을 돌려대고 따끔을 꾸고

단체와 인사들이 《친북리적》, 《종북》으로 몰려 박해와 탄압을 받고있다.

리명박은 《핵포기와 개혁개방정책의 기초는 그자체가 북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라고 북에 말했다. 그뿐아니라 《원칙고수》의 막뒤에서 외세와 야합한 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소동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 실현에 몰두했다. 북과 남의 우리 겨례는 지금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협속에 살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원칙고수》론이 북남관계에 가져다준것은 파국 그자체였다.

있다 한다. 그들은 《일순이 제대로 잡는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하고있다.

여기에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조차 현 《정권》과 《차별화》에 여념이 없고 이 당의 《대전》후보라는 사람의 소위 《유연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개선》을 광고하고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비핵, 개방, 3 000》의 개진 북을 또다시 두드려대고있는 것이다. 그는 얼마전 외교안보통일정책 공약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북

비핵화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 경제, 외교조치》니 뭐니 하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북핵은 결코 용인할수 없다》, 《북핵문제는 역치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를 두고 《북비핵화진전에 상응하는 정치, 경제, 외교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은 선비핵화, 후남북관계발전 접근법》이라고 평하고있다.

명백히 《새누리당》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은 리명박 《정권》의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 000》의 복사판이고 말만 바꾼 《원칙고수》론이 아닐수 없다.

사람들이 그의 《공약》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북남관계에서 《잃어버린 5년》, 재앙의 5년이 되풀이될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공언한것이 아니다.

대결에서 대가 나고 싸리끝에서 싸리가 난다고 《새누리당》후보이자 리명박이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그들의 북남관계가 파국과 충돌, 악화를 넘어 전쟁으로 이어질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땅에서 충돌과 전쟁을 막고 북남관계를 회복시켜나갈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남조선에

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반대하고있다.

북남관계에서 세워야 할 원칙은 대결과 긴장격화를 고취하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존중의 원칙이요 화해와 협력,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들고나가야 할 통일원칙과 방략이 있다. 온 민족이 지지찬동한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이 있고 북과 남이 세계앞에 천명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있다. 이것은 달리 움직일수 없는 북남관계개선의 바른 궤도, 민족통일의 라침관이다. 이것을 떠나, 이것을 부정하면서 그 무슨 《원칙고수》라면서 《원칙고수》를 떠들어뵈었다 그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리명박이 《원칙고수》론을 한창 떠들던 4년전 남조선 야당의 한 대변인은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대결정책을 질타하여 이런 말을 했다.

《력사의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오명 되지 말라. 통일로 가는 력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들에게 다칠 운명은 갈려죽는것뿐이다.》

리명박 《정권》의 종말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있는 오늘 이 말이 꼭 맞는 말이 되었다.

속내를 드러낸 《원칙고수》론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란 력사의 준엄한 심판판이다. **최광혁**

북 남 관 계 를 파 괴 한 《공 권》

임기말에 이른 현 남조선집권자가 또다시 반통일광대국을 벌여놓고있어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27일 리명박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심의, 의결하였다는 반통일분자들에게 대한 그 무슨 훈장수여안이라는것이 그중 하나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사람만이 고안해 낼수 있는 발상이 아닐수 없다.

이번의 훈장수여대상들로 말한다면 오래전부터 리명박의 손발이 되어 그의 대결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해나간 국우보수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가운데는 자기를 낳아주조 키워준 부모와 조국을 배반하고 월남도주하여 동족대결정책수행의 하수인이 되고있는자들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였던 김태효를 놓고보자.

김태효는 리명박 《정권》출범초기부터 《비핵, 개방, 3 000》을 비롯한 대결정책작성을 주도한 천하에 들도 없는 대결광신자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와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대미예속, 대미의존을 위해 발벗고 뛰어나서던 특등친미사대분자이다.

그는 저들의 반통일대결정책이 남조선인민들의 배격과 환멸을 받아 노트링크를 들고다니며 공화국에 수뇌상봉을 예절하다가 민족앞에 얼굴을 들수 없는 망신까지 당하였다.

그뿐아니라 지난 6월에는 력대 남조선당국자들도 감히 엄두를 못냈던 백년속적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문제를 비밀리에 처리하려다가 남조선심사의 폭발로 하여 공직에서 쫓겨나기 까지 하였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공

로》로 《국민훈장》대상으로 되고있다는 김영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로 말하면 남조선의 통일에국운동에 기여한 우연분자로서 그 무엇인가 하는것 하다가 독재 《정권》에 의해 감옥에 잡혀들어가지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북주중주의에 빠지 면 안된다.》고 하며 전항상 한창에 신념을 팔고 변절한 배신자이다.

그는 자기의 배신을 증명하기 위해 《인권운동가》의 허울을 뒤집어서 《인권》을 《북인권개선》, 《국제법》를 떠들면서 반공화국암해책동에 급급하였다.

특히 그는 조중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며 공화국주민들을 유인람치하고 내부로 와해시키며 국가군사비밀을 수집하려다가 올해 3월 해당 나라의 공안기관에 체포되어 7월에 강제추방당하기 까지 하였다.

더구나 용서할수 없는것은 김영환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는 천추에 용서 못할 죄악을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김영환을 악질민족반역자, 처단대상자로 단호히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런 인간쓰레기들에게 《훈장》을 주겠다고 하니 말 믿는다. 사실들은 리명박의 대결본심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제 또다시 리명박과 같은 반통일대결분자가 권력을 차지한다면 김태효나 김영환과 같은 민족반역자, 통일의 배신자들에게는 좋을는지 몰라도 북남관계는 상상할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삼천리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미래와 번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김철호**

지금으로부터 64년전 남조선에서 조작된 파썸악법 《보안법》이 세기를 넘어 21세기의 오늘까지도 존재하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북과 남, 해외의 우익 겨례의 단합과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여온 《보안법》이 아직까지 철폐되지 않고있는것은 겨례의 수치, 민족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력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것을 집권유지의 더없는 수단으로 삼고 통일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말살하였으며 북남대결을 조장하면서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 말살하는 세상에 들도 없는 반인권적인 파썸악법이다.

《보안법》의 《잡임, 탈출죄》, 《회합, 통신죄》, 《찬양, 고무죄》, 《편의 제포죄》, 《불고지죄》 등의 조항들은 가장 대표적인 반인권적조항들이다. 이 조항들만 가지고도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까지 얼마든지 칼부림대상으로

《보안법》, 없는것만 못하다

로 만들어 다치게대로 처형할수 있다. 《보안법》은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보안법》은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 애국인사들과 각계중 인민들을 《친북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 《보안법》에는 진보적인사들에게 《간첩》의 감투를 씌울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 남조선의 력대 보수세력은 《보안법》에 의거하여 진보적경향의 정당들과 단체들에 《리적단체》 감투를 씌우고 탄압하였다.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모략적인 《간첩단사건》에 련걸시켜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최근에만도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왕재산사건》이라는 오만한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의 이전관계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놀음을 발방적으로 벌리면서 탄압소동을 더욱 확대하였다.

《보안법》은 북남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고 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분렬된 우리 민족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며 배양하고 교류하여야 진실과 대결을 해소하고 단합과 통일로 나아갈수 있다. 하지만 《보안법》은 각종 항목들에 기초하여 동족과의 사소한 교류나 접촉도 범죄시하고있다.

《보안법》에 의하여 북의 동포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협력과 연대를 모색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이 《잡임, 탈출》, 《회합, 통신》 등의 죄명을 쓰고 철창속으로 끌려갔다. 리명박보수 《정권》이 평화와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주장하며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와 로수철 법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모친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있는것이 하나의 실례이다. 반통일보수세력은 북과 통일행사를 위해 통신문제를 가진 사람들조차 그 무슨 《지령수수죄》에 걸여 마구 탄압하고있다. 이로 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심화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이고있다.

오늘의 험악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도 동족대결의 악법인 《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김영일



《보안법》철폐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속에는 칼, 입으로는 《신뢰》, 협력관계》

지난 5일 《새누리당》의 《대전》후보가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신뢰를 통한 남북관계정상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운운하였다. 이것이 서로 모순되고 랑립될수 없는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신뢰란 서로 믿고 의지하는것을 말한다. 그러자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각하지 말아야 하며 속에 칼을 품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

속에 칼을 품고나서면 동족간에 불신과 반목이 심화되고 모순이 격화되게 된다. 불신의 감정이 깊어지고 대결이 격화되면 터지기마련이다.

이것은 수십년간에 걸친 북남관계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실용정부》가 등장한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정세가 격화된것은 바로 리명박보수당국이 동족에 대한 적

대시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외세와 공모적락하여 공화국을 암살하고 남조선의 식민주의파썸통치체제를 북에까지 연장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결의 극치이고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는 위험천만한 구상이고 망상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하의 통일》은 민족자주통일을 부정하면서 북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전복》을 노린 반통일구호, 북침전쟁구호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남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불교도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빚어낼수 있다.

신뢰구축은 말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동족을 먹고 먹히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할 대

상으로 볼 때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감정이 해소되고 신뢰가 보장될수 있다.

그러자면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자주통일의 대강이다.

6.15공동선언에서는 북과 남이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실현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한것이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통일화 진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6.15북남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때 다른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킬때 대한 문제, 공리공영

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활성화해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현실적이고 중대한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의와 정당성,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반목과 불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와 단합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님께 따라 대화하고 접촉하고 래왕과 협력을 실현하면서 얻어보지 못한 북남관계를 해소하고 발전시켜왔으며 그 과정에 끊어졌던 강토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고 혈연의 정이 두터워졌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북남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

구도 하지 않았다.

북남공동선언을 외면하면서 《신뢰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정상화》를 운운하는것은 앞뒤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북남관계개선도 하지 않겠다는것이 나 다름없다.

정치가 낡으면 민심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새누리당》후보의 통일정책공약을 두고 리명박의 대결적인 《대북정책》과 하등 다름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북남관계개선과 《체제통일》야망은 절대로 랑립될수 없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주장하는 조건에서는 언제나라도 신뢰에 바탕을 둔 북남관계가 성립될수 없다.

그가 조금이라도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말로만 《신뢰》와 《협력》에 대해 떠들지 말고 이루어지도록 할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 **본시기자 주광일**

조선 외 무성 대변인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단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유엔총회 제67차회의 3위원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조선중앙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EU와 일본이 주동이 되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판에 박힌 허위날조자료들로 일관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선전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

는 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서방세력들은 날로 높아만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위상을 깎아내리려고 해마다 가소로운 정치협잡행위를 일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 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

고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지탱해보려고 벌리는 이러한 추대는 진보적인류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우리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인권의 고상한 리념을 악용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전면배격하며 준렬히 단죄한다.

본시기자

전쟁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장

남조선의 전쟁민간인회생자전국유족회가 11월 20일 서울에서 전쟁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단체는 조계사에서 합동유령제를 가지고 지난 6.25전쟁전후 미제침략군과 리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회생자들을 추모하였다. 이어 단체성원들은 종각 주변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시위자들은 무참히 숨진 부모형제들의 원한이 구천에서 사무치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오늘도 계속되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단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호소문은 리승만 《정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진상규명에 나선 유가족들의 단체

를 강제해산하였을뿐아니라 회생자들의 묘들을 파헤치고 묘비를 부서버리는 해로운적법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호소문은 단죄하였다.

호소문은 당국이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제정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선거》를 앞두고 소용돌이치는 정국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남조선정국이 주요관심사로 되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후보 지지율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대선》 후보들이 3자대결 구도를 펼치며 민심을 틀어잡는데 총주력했다.

그런데 야권에서 후보단일화가 실현됨으로써 3자대결 구도가 뒤흔들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치분석가들은 야권 후보단일화가 실현됨으로써 이번 《선거》는 《과거세력과 미래세력》, 《대결전정세력과 평화변역세력》, 《서민과 귀족》의 양자대결로 접어들었다고 평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분야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들은 의견차이가 확연하다.

《새누리당》의 후보는 《안보와 대결》을 우선시하면서 《천안》호, 연평도사건은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로 규정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중공동체통일방안》, 《북인권법》 제정, 《탈북

자》 지원강화, 《비핵화진전》에 따르는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등의 공약들을 내놓았다. 리명박 《정권》과 거의 다름없는 《대북정책리념》이다. 하기에 《새누리당》의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을 두고 남조선의 여론들은 《MB 《정권》의 《비핵, 개방, 3 000》의 복사판》, 《현 《정권》의 저달난 체제대결과 《홍수물일정책》의 답습》, 철저한 《대결공약》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정치쇄신》과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수 없다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후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주장하면서 폐쇄적인 《5.24조치》해제, 개성공업지구활성화, 서해평화협력기대화, 금강산관광재개방 등 공약들을 내놓았다.

이렇게 두 후보가 내는 공약에서 한쪽은 대결정책이요, 한쪽은 평화정책으로 립장이어 뚜렷이 갈라진다. 이번 《선거》를 《과거세력과 미래세력》, 《대결과 평화》 세력간의 양자대결로

분석하는 여기에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층과 지지세력들에 대한 평가도 있다.

원래 《새누리당》이 보수집단이고 민주통합당이 진보성향의 정당이라는 것이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민심을 기만하여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쇄신》이니, 《MB차별화》니 요란하게 광고하는 바람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흑시나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 《정치쇄신》이고 《차별화》이지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보수의 대결본성은 역시 변하지 않았다.

《국민대통합》으로부터 《보수대통합》으로 회귀한 《새누리당》이 보수중에서도 꼴통보수들인 《선진통일당》, 《국민행복당》과 합당놀음을 벌려놓고 최근에는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동족대결광신자인 리희창과 편대하는 광대극도 연출하고있다. 결국 보수를 총칭하여 보수세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전통

적인 보수세력과 새롭게 보수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있는 상황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정권교체》와 새 정치실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처음에는 무소속후보가, 다음에는 진보정의당의 후보가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사퇴함으로써 후보단일화를 실현하고 진보세력을 강화하며 진보대결을 편성하고있다. 여기에 새 정치, 새 생활, 평화공존과 민중번영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삶에 개선하기 위한 현상에 여론들이 이번 《대선》이 《미래세력 대 과거세력》의 대결이라고 하고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서민과 귀족》사이의 대결이라는 견해도 흥미롭다. 여야 두 후보들의 살아온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서민과 귀족사이의 대결도 따지고보면 결코 레사롭지 않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새누리당》 후보는 출생후 어려움도 없이 생활하였으며 부귀나 청와대의 안방에서 무기영화를 누렸다. 그와 반대로 야당후보는 출

생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유신》독재체제하에서 감옥생활과 같은 인간이사의 생활을 겪어왔다. 이렇게 살아온 방식이 서로 다르다나니 야당후보는 일자리 문제, 재벌개혁문제 등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는 반면 여당후보는 현 리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표방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하고있다.

리명박 《정권》 5년을 살아오면서 쌓이고쌓인 남조선인민들의 분노, 리명박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이 낳은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민주주의적발전의 차단, 민생의 파탄에서 뼈아픈 교훈을 찾고있는 민심의 강렬한 지향, 이를 안고 지금 《대선》을 앞둔 남조선이 소용돌이치고있다.

남조선사회가 《유신》독재와 《5공》, 리명박독재와 같은 슬막하는 과거에 돌아가느냐 아니면 민주와 북남화해, 평화와 발전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운명의 선택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유신》후예들의 민심기만극

11월 26일 남조선에서는 《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한 20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긴급조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육교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대선용 법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유신》독재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처리에 전혀 낮을 돌리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유신》의 죄를 물려받아 오늘에 이른 독재당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유신》독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지금껏 배상을 고사하고 사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지난 9월과 10월에 야당이 발의한 《유신헌법 무효결의안》과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해온 《새

누리당》이다. 이런 《새누리당》이 《대선》이 코앞에 온 지금 《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을 발의한것은 누가 보아도 민심을 기만하여 《대선》에 썩먹기 위한 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원래 일이 되자면 《긴급조치》의 뿌리로 되고있는 《유신헌법》 자체가 무효화되고 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신헌법》의 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만을 주장하고있다. 또 배상이 아닌 보상을 떠돌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박근혜후보가 《긴급조치피해자보상법》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법원도 배상이 아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고있다. 《긴급조치》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기때문에 《유신》독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사죄를 입은 것만으로는 배상,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인대 보상법이란 《긴급조치》가 적용했다는것을 전제로 한 《유신헌법 무효결의안》과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해온 《새

누리당》이 《대선》이 코앞에 온 지금 《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을 발의한것은 누가 보아도 민심을 기만하여 《대선》에 썩먹기 위한 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원래 일이 되자면 《긴급조치》의 뿌리로 되고있는 《유신헌법》 자체가 무효화되고 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신헌법》의 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만을 주장하고있다. 또 배상이 아닌 보상을 떠돌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박근혜후보가 《긴급조치피해자보상법》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법원도 배상이 아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고있다. 《긴급조치》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기때문에 《유신》독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사죄를 입은 것만으로는 배상,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인대 보상법이란 《긴급조치》가 적용했다는것을 전제로 한 《유신헌법 무효결의안》과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해온 《새

누리당》이 《대선》이 코앞에 온 지금 《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을 발의한것은 누가 보아도 민심을 기만하여 《대선》에 썩먹기 위한 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원래 일이 되자면 《긴급조치》의 뿌리로 되고있는 《유신헌법》 자체가 무효화되고 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상투적인 《북도발》설

남조선에서 《대선》을 앞두고 《북의 도발》설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11월 27일 리명박은 남조선군의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놓고 《북은 항시 어느때든 도발할수 있다.》고, 《년말이고 《선거》 때여서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하면서 철저히 《안보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북이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다.

《국무총리》 김황식도 서울에서 벌어진 《연평도포격도발》 전사자 2주년 추모식행사》라는데서 《최악의 도발》이니, 《무자별만행》이니 뉘니 하고 《북도발》설을 또다시 퍼뜨렸다.

《선거》때마다 들고나오던 하던 리명박당국의 판에 박은 《북도발》타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중요한 정치적기때마다 《북도발》설을 끄집어내어 《안보위기》를 확산시키는것은 극우보수세력의 고약한 수법이다.

올해 4월 《춘선》을 앞두고서도 남조선보수당국은 《천안》호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되는것을 걸고 그 무슨 《3월위기》설과 《북의 추가도발가능성》을 대대적으로 퍼뜨리며 남조선사회에 《안보위기》를 고조시켜보려고 비렬하게 행동하였다.

하지만 그때 공화국에서는 군대와 인민이 한몸이 되어 창건거리와 류경원, 인민야의 병상장과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한 평화적전설을 한창 벌리고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남조선민심의 엄한 심판앞에서 불리

한 골목에 빠진 리명박보수당국은 어떻게 해서나 《북도발》설을 주민들에게 퍼뜨려져질러온 모든 반인민적죄파의 책임을 회피하고 《북풍》으로 《대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북도발》타령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반복적대감과 《안보불안감》을 극도로 고취하여 보수세력의 대결공약을 합리화하며 진보세력을 《안보반대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나온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는것이다. 사실 도발은 북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다.

《대선》을 앞두고 그 누구의 《도발대비》라는 미명하에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호국》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부침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 순항미사일과 공격용잠수기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열집지역인 서해군사분계선지역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것이 남조선보수당국이 아니라 말인가.

지난 23일에는 선봉질을 해대다 뒤편을 맞은 연평도사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대신 련일 《응징》을 제창하며 록, 해, 공군을 총동원하여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수역에서 위험한 전쟁연습을 벌려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진자도발자는 누구인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이야말로 권력안정과 재집권을 위해서는 동족을 모해하고 지어 전쟁을 몰아오는것도 식은죽먹기로 여기는 음모와 대결의 능수능이다.

하지만 아무리 《북도발》타령을 늘어놓아도 세상의 눈은 속일수 없다.

김철호

지난 11월 28일 오전 《새누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저를 단독으로 제주해군기지예산이 포함된 방위사업예산을 날치기처리하여 각종의 물의를 자아내고있다.

과시 날치기 당풍 《한나라당》을 그대로 배담

은 《새누리당》만의 날랜 솜씨라 하였다. 《새누리당》은 차폐기당, 부정부패당, 성폭행당 등 온갖 수치스러운 명칭으로 지란탄 《한나라당》을 일신한다면서 현 《새누리당》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을 맡아 만들어낸 당이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국민대통합》과 《새로운 정치》, 《쇄신》 등을 내세워왔

다. 《대선》을 앞둔 최근에는 《신뢰》와 《원칙》 등 귀뜻좋은 말도 많이 하고있다. 하지만 보다싶이 하는 행동은 그와 정반대이다.

만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신뢰와 원칙을 지키고 국민대통합을 바란다면 남조선인민들이 그

토록 반대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도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여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합의하여 통과시켜야 했을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저들이 요란하게 광고하던 《새로운 정치》, 《쇄신》,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셈이다.

명금룡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오즘 우리 동포사회에서 이남에서 앞으로 있게 될 《대선》에 관심이 꽤 많다. 고향에 대한 향수때문인지, 아니면 이남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대선》에 한표를 행사한다고 해서인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어떨까. 이러한 분위기를 어떨까. 이러한 분위기를 어떨까.

1971년 당시 남조선에서는 집권 10년간 《유신》독재자가 저지른 파조적인 만행과 폭거로 하여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거세하게 울려나오고 낮은 정치세력의 방조로 대기업체들이 부당한 확장을 일삼아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경제민주화가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대선》에 또다시 출마할 속심일에 《3선개헌》까지 불법적으로 조작한 권력의 야심가인 《유신》독재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위협이었다. 이로부터 내놓은것이 이번 《선거》가 마지막출마이며 더이상 권력

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한 《배수진》 전략이었다. 평소 권력을 놓거나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운다는 생각을 털끝만금도 해보지 않은 《유신》독재자였건만 당시 정세는 것처럼 긴박하였다. 그래서 박정희는 《대선》을 이를 앞두고 유세장에 나

가 저지른 파조적인 만행과 폭거로 하여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거세하게 울려나오고 낮은 정치세력의 방조로 대기업체들이 부당한 확장을 일삼아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경제민주화가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대선》에 또다시 출마할 속심일에 《3선개헌》까지 불법적으로 조작한 권력의 야심가인 《유신》독재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위협이었다. 이로부터 내놓은것이 이번 《선거》가 마지막출마이며 더이상 권력

《마지막기회》라고? 라는 《나에게 마지막이 될 이 《선거》에 대해 한번 더 신입해준다면 후계인물을 육성하겠다.》, 《더이상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감언리설을 다하였다. 심지어 눈물까지 내비쳤다. 그리고 《대선》전날 방송연설에서 다시한번 이와 같은 호소를 했다. 그 모습이 불쌍하여 그때 나는 흑시나 하는 감정으로 박정희에게 투표를 하였다. 당시 이렇게 나처럼 생각하고 박

정희에게 투표한 사람은 부지기수이다. 그런데도 《선거》결과를 보니 《유신》독재자는 야당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를 두고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정희가 재집권해서 한것이 《유신헌법》을 조작하고 죽는 날까지 장기집권을 한것이다. 그 꼴을 보기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쓰디쓴 참패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반공화국군사적도발에 계속 매달려오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는 《북의 진지타격》을 운운하며 합체공격을 순항미사일을 개발하여 구축함대를 타격하였으며 서해일대에서 《북의 포격 및 기습대비》를 내리고 전쟁연습소동에 몰두하고있다.

11월 27일에는 리명박이 청와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의 대남도발》이 어떻소저명소 하면서 공화국을 자극하는 도발적언사를 내뱉었다가 하면서 앞서 국방장관 김관진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데서 《응징》이요 뉘오 하면서 호전적발언을 망탕 해대었다.

도발과 부침폭언이 일상화된 대결분자들의 무분별한 언행이라 해야 할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악화의 장본인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자들이다. 사실 리명박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앞에서 말끝마다 《대화》요, 《평화》요 하였지만 돌아앉아서는 엄중한 반공화국군사적도발에 매달려왔다.

리명박 《정권》은 출현하여 지금까지 2009년의 서해무장도발사건, 2010년 3월의 모략적인 《천안》호사건과 11월의 연평도사건 그리고 《울지 포커스 렌즈》와 《독수리》를 비롯한 대규모부침합동군사연습의 실시 등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군사적분장난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단식으로 확대

하여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호전세력은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엄중히 증상모독하는 표적사건과 같은 특대형도발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국무박정》에 불을 《주증》으로 쏘아박았으며 뻔질나게 전전지대들을 나들며 《단호한 응징》이요, 《원점타격》이요 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9월부터 쭉아보아도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호국》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을 40여차례나 벌려놓다 못해 11월 23일에는 《응징》을 떠들며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수역에서 남조선군을 총동원한 타격훈련까지 진행하였다.

그뿐아니라 공화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공격할수 있는 란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과 같은 현대전쟁장비중장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리명박당국이야말로 이 땅의 안정과 평화를 유린하는 도발자, 파괴자라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동족대결, 전쟁도발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호전관들의 비참한 패배뿐이고 남조선이 입을 막대한 피해이며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는 폐허뿐이다.

리명박당국은 무모한 군사적대결, 긴장악화, 평화파괴가 가져올 심각한 후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성중삼

쌍룡자동차사태해결을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의 쌍룡자동차법국민대책위원회 성원 3 000여명이 11월 2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쌍룡자동차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해고하여 사

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던 쌍룡자동차사태를 바로잡고자 사내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업주측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것만큼 《새누리

당》이 반드시 《국정조사》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요구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엄명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적인 종교단체가 성탄절을 맞으며 군사분계선 서부지역의 최전방에서 《등탑불켜기행사》라는것을 벌리려다 그곳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남조선군부가 12월 중순까지 다른 단체들의 신청여부를 보고 허용할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저들을 이런 단체들의 결정을 《존중할것》이라고 공포한것이다.

다시말해서 공화국을 자극하고 비방하는 극우보수단체들의 《등탑불켜기》놀음을 《존중》의 미명하에 승인할수도 있다는것이다.

이번에 남조선군부가 거론한 보수단체들의 《등탑불켜기》시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다.

알려지다싶이 심리전은 교전상태에 있는 대방의 심리를 자극, 교란하여 정신적 및 심리적 파피를 일으키는 일종의 전투행위이다.

하기에 심리전은 그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자기에 대한 적대행위, 선전로고로 간주한다.

지난 2004년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심리전에 리용되는 모든 수단들을 제거하고 베라살포와 방승을

비롯한 일체 적대적심리전행위를 금지할것이라고 합의공포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에 리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남조선군부는 음모양으로 심리전수단들을 다시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의 말을 쓴 극우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베라살포와 방승선전 등으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벌려왔다.

사실 문제의 《등탑불켜기》놀음도 2010년 다시 재개했다가 공화국군대의 강력한 조준사격고를 받고 호지부지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존중》이요 뉘오 하면서 또다시 《등탑불켜기》놀음을 벌려놓으려 획책하는것은 결국 이 땅에서 끝끝내 군사적충돌과 전쟁의 포성을 울리려는 위험천만한 소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 등탑들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에서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풍공방으로 이어가려 한다.》고 규탄하면서 무모한것을 당장 걸어치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분별없는 당풍이 빚어낸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김혜성

《등탑불켜기》는 반북심리모략전

백두산의 신비경을 보여주는 사진들

평양시 서성구역 룬봉동에 살고있는 로력영웅이며 공훈 예술가인 리성배박사가 천하 제일명산 백두산의 신비경을 더 잘 알게 해주는 사진첩들을 완성하여 내놓았다. 지난 수십년 동안에도 그리

하였지만 최근년간에도 그가 백두산에 대한 탐험조사사업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완성한 사진첩들 가운데는 《백두산의 눈얼음층과 눈얼음동굴》, 《천지물가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 등이 있다.

자기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 기온이 평하로 내려가면 바다에서의 물흐름은 완전히 중지되고 천지의 눈얼음은 더욱 강도가 세지면서 기이한 모양새를 만든다. 이 과정에 불수록 신비로운 눈얼음층, 눈얼음동굴이 형성된다. 과도형의 무늬, 이채로운 무리등모양을 비롯하여 마치 이룬나 조각가가

다듬어놓은듯 한 기묘한 모양새를 갖춘 눈얼음층과 눈얼음동굴들은 백두산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준다. 사진첩에는 장군봉과 향도봉, 해발봉, 단결봉, 쌍무지개봉 등 백두산의 곳곳에서 최근년간에 찾아낸것들 가운데서 수십개의 눈얼음층과 눈얼음동굴의 사진이 들어 있다.

해서, 천지호반에서 살다가 장마철에 내려온것들이 뿌리를 내린 식물들이라고 한다. 천지물가와 물속에서는 가는 가늘고 이끼류들, 습지대에서 자라는 두메솔자리풀, 산머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있다. 사진첩에는 지난 세기 80년대와 최근 여러해동안 천지물가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찾아낸것들중에서 30여 종을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다. 사진들말에는 해당 식물의 이름과 과명, 활영한 날자와 함께 그 생태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식물상이 다양해지면서 천지물가와 물속에서 갖가지 물상이식물과 땅살이식물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화풍들을 담고있는 사진첩은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사는 우리 겨레를 더욱 기쁘게 하고있다.

백두산의 눈얼음층과 눈얼음동굴

백두산의 눈얼음층과 눈얼음동굴은 더운 계절에 백두산에서만 보게 되는 특이한 자연현상이다. 년중 추운 계절이 200일이상 지속되는 백두산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들었고 온도가 높아지면 눈이 녹기 시작된다. 이때 봉우리들의 경사면과 깊은 계곡들에 쌓여있던 눈의 표면이 가열되면서 녹아내리다가 밤에는 기온이 평하로 내려가면서 다시 평각되어 얼음으로 된다.

층을 이룬다. 한편으로 웃층은 점점 강도가 센 눈얼음으로 되고 계곡의 밑바닥에서는 우에서 흘러내리는 눈석이물과 릉선들에서 모여드는 눈석이물에 의해 물결기가 형성되면서 물결이 생겨나게 된다. 이 물결에 의해 밑바닥에서는 점차 구멍이 확장되면서 눈얼음동굴이 이루어지게 된다.

천지물가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

백두산천지의 호반과 물가, 물속에서는 다종다양한 식물이 자라고있다. 천지호반에서는 만보초가 눈속에 피어나 특유한 정서를 안겨주고있으며 들쭉나무, 참취, 들꽃, 범꼬리풀을 비롯하여 수많은 식물식물, 약용식물, 사스레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고있다. 그러기하면 천지물가와 물속에서도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고있다. 사진첩의 사진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세계의 명승인 백두산천지물가와 물속에서도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고있어 풍치를 더해주고있다. 천지물가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천지호반과 밖에서 자라던 식물들의 종자가 바람에 날려오거나 새들을 통해 분포된 종자들에 의

조 선 화 《 서 당 》

조선화 《서당》은 리조시기의 이룬나 화가 김홍도(자네 사봉, 호는 단원)가 18세기 그려 그린 그림이다. 시골촌락에서 글을 배우고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작품은 봉건시기의 글방인 서당에서의 생활과 아이들의 성격적특징을 흥미있게 보여주고있다. 럽석부리 훈장정감은 회초리를 옆에 놓고 학습검열을 한다.

대밭 한 너석은 글러 나와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지 매를 맞고 돌아앉아 울고있으며 다음 너석이 또 떠들거리며 진땀을 뻐다. 매맞고 울던 너석은 떠들거리는 애를 슬며시 넘겨다보고 다음차례를 기다리는 너석은 책장을 번져가며 가슴을 조이는데 그뒤에 앉은 총각에는 훈장 몰래 귀뿔해 주기에 여념이 없다.

이 꼴을 바라보는 훈장의 미간은 찌프러지고 아직 차례가 먼 맞은편 너석들은 웃음을 참지 못해한다. 성이 잔뜩 오른 훈장의 모습과 일이 어떻게 번져지는데 하고싶은것을 다하는 아이들의 형상에는 주관적욕망과는 달리 애들을 휘어잡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훈

생물 생동하게 드러내보여 준다. 또한 힘있고 활달한 필치와 세련된 담채형상은 나이 많은 훈장과 학생들의 심리적충동과 봉건시기 글방생활의 독특한 정서를 생동하게 부각시켜주고있다. 작품은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작품으로 알려져있으며 그의 능숙한 회화적기량을 보여주는 유산의 하나로 되고있다.



눈 얼 음 층

눈 얼 음 동 굴

물 꽃

면 마

범 꼬 리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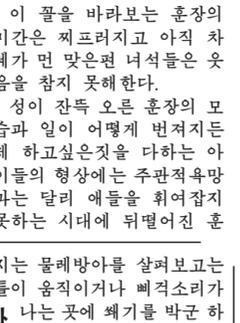
꽃은 뚜렷한 줄기가 없이 여러개의 긴 잎들로 포기를 이루는 여러해살이 뿌리식물이다. 5월 중순경부터 하순에 걸쳐 긴 꽃대위에 직경이 7~8cm정도 되는 푸른 보라색의 고운 꽃이 피어나다.

꽃은 우리 나라 거의 모든 지방의 산기슭, 산골짜기에서 자라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심어 가꾸어왔다. 꽃이 피기 전의 꽃망울이 마치도 붓끝과 같이 생겼다는데서 그 이름을 붓꽃이라고 했다.

그 이름이 붙게 된데는 그럴만 한 전설이 있는데 있다. 옛날옛적 어느 한 고을에 자 연풍경을 잘 그리는 가난한 화공이 살고있었는데 그에게 는 소중히 여기는 커다란 붓이 있었다.

화공이 붓으로 잡자는 황소의 코 등을 툭툭 치자 황소는 더 요란스레 숨을 쉬고 왕도 역시 점점 더 깊은 꿈 나라로 빠져들었다.

리조시기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과학자, 발명가, 출판인쇄기술자인 리천(1376-1451)이 세종왕의 령을 받고 새 활자인 《경자자》를 발명하였을 때였다.



꽃이름 유래와 전설

신기한 붓이 꽃으로 된 《붓꽃》

새끼에 대한 생각을 하진중이

에 취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고나서 중의 화공에게 이 붓으로 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붓에는 색감이나 먹물이 전혀 묻지 않는것이였다. 중의 화공은 왕에게 이 붓은 천한 그 화공만이 쓸수 있는것이라고 아뢰었다.

그리자 포악한 왕은 그 천한 화공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질렀다.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화공은 신하들에게 불려 왕앞에 끌려갔다. 왕은 그에게 보면 배가 부르고 보면 웃음이 나고 보면 잠이 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였다.

왕은 그 꽃을 보니 화공의 붓대를 보는것같이 꽃을 꺾어버리라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그 꽃은 세토기를 꺾으면 여섯포기로 늘어나고 여섯포기를 꺾으면 열두포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꽃을 그 화공의 붓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붓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왕은 그 꽃을 보니 화공의 붓대를 보는것같이 꽃을 꺾어버리라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그 꽃은 세토기를 꺾으면 여섯포기로 늘어나고 여섯포기를 꺾으면 열두포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꽃을 그 화공의 붓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붓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봉오리가 통채로 툭 떨어진다.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을 《춘사》라고 하는것은 동백꽃이 갑자기 떨어지는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처럼 불길한 함과 금사를 상징하기때문에 병문안을 갈 때에는 동백꽃을 선물하지 않는다.

《다계단》 불화살 신기전

《다계단》 불화살 신기전

15세기 우리 나라의 무기 기술자들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불화살을 제작하였다. 불화살인 신기전은 그 크기와 구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으로 구별되어있었다. 소신기전은 화살의 꼬리 부분에 있는 약통에 불을 달았을 때 뒤로 내뿜는 화약가스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다가 화약이 다 탔을 때 그앞에 있는 외통에 불이 넘어가 먼곳까지 날아갈수 있게 한 일종의 《2단로켓트》였다. 중신기전은 소신기전보다

《다계단》 불화살 신기전

《다계단》 불화살 신기전

다 소발화라고 하는 화약통이 하나 더 있는것이였고 대신기전은 약통, 외통, 지화, 소발화의 4개 화약통이 달려 있는것이였다. 특히 대신기전에는 허리부분에 날개까지 달려있어서 정확히 비행할수 있었다. 15세기에 이르러 우수한 불화살을 창안제작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무기발전사에서 하나의 큰 자랑으로 된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러한 《다계단》 불화살을 리용하기 시작한것은 17세기부터였다.

신하들이 왕의 어명을 받고 화공에게 달려들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붓을 다 찢고파 해야야 왕에게 바쳤다. 왕은 그 신기한 붓을 손



에 집에 들렸습시다. 저녁상을 마주하고 장아저씨와 아버지사이에서 심중할 말이 있었습니다. (선미가 이번에는 어떤 사연을 적었을까?)

장군님께서는 손가락을 내미시어 선미의 작고 뾰족보통한 손가락에 걸고 흔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장군님과 선미와의 이 류다른 편지거대 약속은 처음 내미시어 장군님의 맹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실어오는 한줄기 바람결과 같은것으로 되어갔다.

장군님께서는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는감을 받았습니다. 장군님께서 편지를 보실 때마다 그의 정신육체적정신이 기쁘시었고 아열실정, 《그렇기말구. 할머니건강만 아니라 내 하고싶은 말을 다 써라. 약속하자.》

6. 15의 봄빛 (3)

6. 15의 봄빛 (3)

6. 15의 봄빛 (3)

《동무는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 함일의 로투사를 모시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로투사들이 하나를 떠나갈 때마다 조국통일을 못보고 가면 어찌하느냐고, 이젠 옛일을 추억할 말동무조차 없애진다고 애석해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함일투사들이 없애진 않아도 우리 당에 힘이 된다고 건강을 돌보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나와 늘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어머니의 병에 대해 귀찮도 하지 않았습니까. 섭섭합니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동백나무의 양효

동백나무의 양효

남해의 다도해섬지방에서 피기 시작하여 1월에 절정을 이룬다. 동백나무열매에서 추출하는 동백기름은 머리기름, 화장품원료, 고약, 등잔기름 등으로 쓰였다. 동백꽃은 《산다화》로 부르기도 하는데 예로부터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하여 그늘에 말리워 화상근고나 리노제로 썼왔으며 동백꽃이 절반쯤 피었을 때 그늘에 말리운것은 림질, 리노, 토혈치료제로 리용하여왔다.

아침에 더운물을 마시면 심장병발작이 적다

의 학 자 들 이 금 사 한 2 000명의 심장병환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의 환자들이 아침 6시부터 점심 사이에 병이 발작하였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전문가들은 보통 아침에 환자들의 혈소관활성이 증가되고 혈전이 쉽게 형성되면

유모아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

옛날 어떤 귀한 집 부인이 불기쁨에 생긴 총쳐가 세나서 의원을 청해왔다. 의원이 총쳐를 살펴보고 돌침을 놓자 부인은 깜짝 놀라 방귀를 뽀뽀하였다. 의원은 웃으면서 《(방문)에는 방귀도 한번 뽀뽀야 좋은것이 두번 뽀뽀하면 나쁘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인은 그만 얼굴을 붉히며 물물바를 물라했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됐습니다. 동무와는 안되겠습니까. 예 선미야.》